2025.12.7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거듭난 베드로가 부탁한 그리스도인들의 절대목표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후서-

에스겔 36:26-27, 베드로후서 1:2-4

정윤돈 목사님

*** 겔36:26-27**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 벧후1:2-4**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의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이 땅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헌신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과 직장과 가정과 가문과 특별히 후대를 위해서 올인하고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모든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레마의 말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여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기업에서 사장님까지 되신 분이 말씀한 내용이 있다. 그분이 성격이 너무 내향적이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자기를 전혀 모르는 데로 이사를 가서 더 자신있게 친구도 사귀고 능동적으로 발표도 하고, 2학년 때는 반장도 되고 그 후로 대기업의 사장까지 됐다고 한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명을 번성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문제가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변한다. 원래 나는 그렇다고 말한다. 은총에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 있다. 특별은총은 성경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일반은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악인도 열심히 일하고 논밭을 갈면 곡식이 자라고, 예수 믿어도 안 갈면 그 밭의 쌀은 자라지 않는다. 그걸 일반은총이라고 한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섞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거듭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전문적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나무가 쇠로 되거나 쇠가 돌로 변할 수는 없지만, 나무를 잘 깎으면 국보 1호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으며 나를 발전시켜야하고 나를 알아야 한다. 우리들이 우리 수준 안에서 나의 성품 때문에 인생을 실패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또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담학 같은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거듭나고 변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어야 한다. 베드로가 말했다. 내가 신의 성품까지 자라야 돼. 항상 똑같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다.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나면 '너 완전히 변했다'라는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내 혼을 바꾸면서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나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누려지게 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장점이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고 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한계를 지을 수 있다. 성격은 뭐든 장단점은 있으나 그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르게 지었다. 그래서 이해하고 적응하고 그걸 활용을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걸 왜 저러지 나하고 다르다고 갈등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만 힘들고 미쳐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드물게 복음 안에서 자기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항상 보완하는 사람이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평생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거듭났다. 베드로전·후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었던 베드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다. 정말 복음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면 '내가 옛날에 그랬던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된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딱 그렇다. 나의 인생에 걸림돌이 됐던 것들이 싹 사라졌다. 저는 성도들에게 많이 이렇게 답한다. 성도들은 각자 어려움이 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갇혀서 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른 분보다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돈이 없는데도 헌신하는 분들이 계신다. 무슨 말인가. 내 환경, 경제적 조건,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내 안에 얼마만큼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느냐의 차이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상황이었지만 너무나도 기쁘고 은혜롭고 감격스럽게 순교를 했다. 여러분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완전히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문법은 사역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죄악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실 줄 믿기 바란다. 조건이 있다.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너무 악하고 더러운 존재예요. 의는 나에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있어요.'라고 고백하면 된다.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시면 사도 베드로처럼 되어지는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성령충만해지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돌아간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까지 깊이 뿌리내려 복음으로 체질이 변화되면 이러한 역사가 되어질 줄 믿기를 바란다.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베드로후서는 순교를 앞둔 베드로가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기록한 마지막 편지이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절대목표들을 부탁하고 있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거듭난 베드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1) 베드로를 변화시킨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대답하였다. 더러는 세례 요한(개혁주의자), 더러는 엘리야(신비주의자), 예레미야(박애주의자)나 선지자(종교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내 체질이 올라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

표로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 입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된 사람이 아닌 것이다. 완전복음으로 체질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한다.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불러라. 여러분 안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귀신, 삶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꽉 차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을 때마다 귀신들이 한두 마리씩 날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영적으로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이때는 베드로 자신도 이 대답의 완전한 의미를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평생 베드로를 성장시킨 가장 중요한 완전복음의 말씀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짖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 근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라.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산소가 피에 들어온다. 피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호흡인 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다 성령충만하고 복음충만하고 건강충만해야지 직장 안에 역사하는 귀신과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다. 직장생활도, 경제생활도,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다 영적인 싸움이다.

(2) 두 번째는 부활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사망권세 이기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 주님의 그 역사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여러분이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느냐. 만약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정도의 수준 밖에 안된다. 부활의 믿음이 나의 모든 삶, 문제, 현장에 적용될 때 엘리야가 3년 반 만에 비를 내린 정도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된다. 세상의 문제, 어려움이 나와 관계없을 정도로 주님의 수준은 높은 보좌에 계시다. 하나님의 성품까지 하나님은 이르기를 원한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있는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드리겠다.

(3) 세 번째로 '오직 예수'의 복음이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기 때문에 주일 날 예배에 오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과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왕의 왕 그리스도이시다. 사탄, 귀신이 가져다주는 운명, 사주, 팔자를 박살내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원죄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이시다. 죄는 재앙, 저주를 가져다준다. 대제사장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참선지자 그리스도이시다. 천국 가는 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길을 다 열어주신다.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4) 베드로 사도는 주 예수를 더욱 깊이 앎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복음을 아는 것만큼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응답받는다. 말씀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며 정말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더 큰 능력과 응답과 축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드린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베드로가 부탁한 그리스도인들의 절대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많은 체험과 말씀 속에서 거듭난 베드로는 순교를 앞두고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도전해야 할 절대목표들과 미션의 말씀들을 주었다.

(1) 첫째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신의 성품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여기서 말하는 덕은 유교에서 말하는 덕이 아니라 뛰어난 믿음 위의 믿음을 말한다. 뛰어난 믿음을 가져버려야 한다.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나는 주님을 '필레오'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성도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목숨을 걸 정도의 상태로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결국 성도들도 서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흑암에 쌓여 있을 때는 앞뒤가 안보여서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모른다. 아이같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정신적인 문제가 되고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복음으로 완전히 깨버리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축원드리겠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갱신하고 개혁하고 배워나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자기 약점이나 문제점을 지적당하기를 싫어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강단말씀을 통해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완전히 복음 앞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란다. 주님 앞에 손을 들어라. '나는 다 틀려요. 하나님이 맞아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세요. 끌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제자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여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2) 두 번째 절대목표는 타락한 기존신자들을 살려 내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타락한 기존신자들을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절대목표 중의 하나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타락하면 안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야 된다.

(3) 세 번째로 올체인지해야 할 절대목표를 말씀하고 있다. 잘못된 복음과 틀린 성경적인 진리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들을 모두 참복음과 참성경적인 지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사명이고 절대목표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참 진리 오직 예수의 정확한 이 복음을 알고 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기 바란다. 이것이 은혜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영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서 섭리하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게 개혁주의신학, 장로교 신학의 가장 핵심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전도제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전도는 쉬운 건 줄 믿기를 바란다. 예비된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나님은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전도자로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란다. 여러분은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이 백성이 복음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4)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전도에 대한 절대미션을 주고 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더 온전히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알지 못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모든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올인하고 생명 거는 그러한 제자들만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3천 제자 그리고 정말 1천만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